

2015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5.8.28(목) 15:00~16:30

■ 주요 의견 내용

▲ 심층성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 25일 '뉴스현장 14' 가짜 전세로 부동산 사기...서민 등친 중개업자 내용에서 가짜 전세계약서로 세입자의 대출금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에 관한 보도인데, 세입자의 계약 시 주의사항 혹은 금융권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임(김연화 부위원장)
- 7일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서 시사평론가와 변호사가 출연해 '치킨 값 2만원 고공행진...국민간식 맞나?'라는 주제로 양계업계와 치킨외식 업체 간의 갈등 조짐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원론적이고 추측성 이야기가 많아 아쉬웠고 또한 변호사가 출연해 치킨외식업계의 단합 가능성 등 공정위 이슈 등으로 시원한 해결책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해 다소 답답했음. 오히려 양계업계와 치킨외식업계 관계자들을 출연시켜 각각의 현실적인 주장을 듣고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좋았을 듯함(성낙용 위원)
- 21일 '청년실업 심각한데...100대 기업 11곳 고용세습' 내용에서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 깔린 원인을 함께 분석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는 생각을 함.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노조의 막무가내식 모럴해저드와 이에 밀린 기업이 결국 많은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기회의 박탈을 가져온 것이며 강한 조직력을 가진 몇몇 강성노조가 많은 취준생,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기회의 박탈과 각종 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것임. 노와 사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 대기업 귀족노조와 다수의 근로자간의 이해상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 분야가 노동개혁의 핵심이며, 이러한 문제의 대한 심층보도가 필요함(이용우 위원)
- 18일 '뉴스현장'에서는 '과학수사 끝없는 진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실제 해결사례, 기법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국과수의 역량에 대해 소개함. 지문을 넘어선 장문(손바닥) 인식, 걸음걸이 분석, 수중 과학수사, 채취(냄새) 분석 기법 등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놀라운 수사 기법과 함께 실제 사건 해결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줌.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모바일 등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학수사 기법(디지털포렌식)이 발달 되어 훼손, 오염, 조작 등에 의해 감춰진 진실을 찾아내고 고도화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러 수사 방법이 개발되고 있음. 또한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출범 60년을 맞았고, 동시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를 국/관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수사 등 관련 분야가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되면 좋겠다고 생각함(이현규 위원)

- 16일 '명품 리포트 맥' "현장 인"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일본식 표현을 지적했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일회성 뉴스보다는 몇 번에 걸친 기획물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이에 더해 일본식 표현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영어와 영어식 표현의 문제점도 같이 짚어줬으면 하고 한글날 특집으로 심도 있게 다뤘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26일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에 대한 보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고 간단한 내용만 전달함. 현행비율에 대한 언급도 없고, 현행비율에서 10%포인트 가중된 개선된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음. 또한 횡단보도 부근에 대한 기준도 언급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김연화 부위원장)
- 11일 사법 불신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기자가 취재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함 "대구여대생 사망" 스리랑카인 2심에서 무죄 판결 보도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불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시청자에게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할 우려가 있음(김용주 위원)

▲ 반복보도 등 보도시 주의사항

- '워터파크 몰카' 뉴스는 매우 충격적이고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으나 .첫 뉴스를 지난 20일 목요일 보도했는데 무려 4일간 23일 일요일까지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계속되었는데 과연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의문이 생김. 주요 뉴스가 보도되고 이틀내지 사흘까지 계속 보도되는 경우가 많음. 시청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뉴스별 보도 기한을 정해 주었으면 함(이용진 위원)
- 8월 초 며칠에 걸쳐 방송된 롯데 관련 뉴스는 비록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 양이 좀 많았다고 생각함(최현철 위원)
- 24일 '출발 640' 내 집 현관에 몰카를? 빈집털이도 첨단화내용에서 최근 몰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몰카 종류가 필터링 없이 소개되고, 현관 앞에 몰카를 설치하는 장면이 반복 상영되는 등 범행 대상과 방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어 모방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음(김연화 부위원장)
- 범죄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도해야 함. 12일 마약 복용한 보이스피싱범 검거...텔런트 임영규씨 도움내용에서 텔런트 임영규 신고로 마약에 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잡아 경찰이 텔런트 임영규 씨의 신고로 마약에 취해 있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았다는 보도는 신고자의 보복피해우려 때문에 익명으

로 처리해야 할 것 임(김용주 위원)

▲ 언론의 역할과 필요성

- 19일 '재벌총수들 국감 줄소환 공포...롯데 사태 후폭풍' 보도내용처럼 문제가 있는 기업의 CEO를 국정감사에 불러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입법부의 역할임. 다만, 사안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서 논리와 설명보다는 질타와 호통위주의 질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음. 기업 활동상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담당하는 적성선의 임직원을 불러서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소명 받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북돋아주는 국감의 모습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방향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요청됨(이용우 위원)
- 15일 '보릿고개부터 스마트 농업까지...광복 70년 농업 사진전' 내용에서 침체된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기사인 듯함.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눈부신 발전을 했듯이 우리 농업도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뤘음. 비록 최근 값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면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만, 다른 많은 나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화된 분야, 특화된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농업도 희망이 없지 않다. 이미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무기로 성공신화를 쓰는 경우도 많으므로 앞으로도 농업부문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에 뛰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람(이용우 위원)
- 18일 '출발640' '정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합동점검'기사에서 텐진항 폭발사고가 규정위반 등 인재사고일 확률이 높은 가운데 국민안전처는 정부합동으로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있는 부산, 울산, 여수 등의 항만을 집중 점검한다는 소식과 이번 점검을 통해 유해물질 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국내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런 조치들이 단발성 이벤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가 필요해 보임(성낙용 위원)

▲ 방송심의기준 고려해 신중히 보도해야

- 18일 '한국 벤처기업 육성하는 대륙의 재벌2세' 내용에서 중국 재벌기업이 한국의 벤처를 육성한다는 콘셉트는 재미있었는데, 미모의 재벌2세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하다 보니 다분히 홍보성 기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음(이용우 위원)
- 12일 오후뉴스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 80대 남성 분신'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흐릿하기는 해도 분신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되었는데 심약자나 아이들의 시청한다고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섬(이용진 위원)

- 5일 '포대에 담겨 산 채로 매장된 애완견 구조' 보도와 관련하여 축 늘어져 있는 애완견을 그대로 보여주어 다소 자극적이었음.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이헌규 위원)

▲ 자막표기, 부적합 표현 등 개선필요

- 1일 '출발 640'에서 화면 하단 연합뉴스 실시간 뉴스 스크롤에 "PGA 타이거우즈 퀴큰 론스 1라운드 선전 3언더파"라고 했으나 새벽 5시전에 8언더파로 2라운드 경기가 이미 끝났는데, 그대로 둔 경우. 25일 새벽 2시 남북 고위급회담 6개 합의문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고도 "남북 합의문 도출 노력"등 맞지 않는 내용이 6시까지도 계속 됨. 연합뉴스실시간 뉴스 스크롤은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갖는 연합뉴스TV만의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실수나 무감각이 옥의 티가 되고 있음(강대인 위원장)
- 22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 남북 당국자 회동 소식과 관련 북한 방송의 화면과 함께 북한 아나운서의 방송내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청와대 김광진 안보실장"이라고 이름을 잘못 표기함. 사람 이름과 숫자는 늘 정확한지 확인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강대인 위원장)
- 7일 보도자막중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데,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 보도 자막이 시청자들에게 마치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하게 할 우려가 있음. 피의자의 반론권 차원에서도 자막에 피의자의 혐의부인을 추가 했으면 함. "농약사이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명백한 허위진술"자막에 "...피의자 혐의부인"을 첨가 했으면 함(김용주 위원)
- 실시간 뉴스의 자막과 화면 안의 자막의 문제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1일 오전 8시 10분경에 "오후 5시 이후 작전 진입 가능한 전시상태", "군사작전 지휘할 지휘관들 해당 전선 급파" 등 주체가 불분명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았고. 25일 오전 8시 15분경 이미 새벽 2시에 남한과 북한이 6개항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뉴스에서는 "합의문 도출 여부 주목"이라는 자막을 전했다(최현철 위원)
- 5일 '진짜 김일성' 김경천 장군 후손 등 11명 특별 귀화'보도와 관련해 북한 김일성 주석이 김경천 장군의 경력을 도용했다는 내용을 상기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이헌규 위원)
- 자료사진이 보도내용과 불일치했음 16일 잘못된 정보 제공한 부동산 중개인 ... 책임은? 보도에서 의정부지법의 판결내용을 보도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을 보도함(김용주 위원)

▲ 프로그램 제작의견 및 앵커 관련

-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으로서 방송법 제89조에 적시하고 있는 편성 목적을 위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일반적인 매체비평을 소개

하는 코너를 앞에 제시하기 보다는 연합뉴스TV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노력을 담은 코너를 부각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음. 주당 60분 이상의 편성해야 하는 방송법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 3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재방송하여 60분을 맞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시청자 의견을 담기에는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 부분에 투자해야 할 것임(양승찬 위원)

- 한 프로그램 안에서 메인 앵커가 경성뉴스와 여성뉴스를 동시에 전달할 때 시사성이 있는 뉴스를 심각하게 다루다 갑자기 연예나 생활 정보 뉴스를 패널들과 이야기하는 상황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당황스럽고 뉴스 성격에 따라 급변하는 앵커의 행동양태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타 방송사의 경우 리포터나 다른 아나운서가 참여하여 뉴스 주제에 따른 섹션을 구분하고 있음) 21일 '뉴스다이제스트' 방송의 경우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한 심각한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성 앵커의 표정은 웃는 얼굴이었는데, 뉴스의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아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보임(양승찬 위원)

▲ 긍정적인 평가 및 기타의견

- 25일 새벽 1시부터 남북회담 극적타결 합의 및 자막 방송이 돋보였음. 신속성과 내용에서 종편은 물론이고 경쟁사보다 차별성이 있었음. 특히 대표단의 청와대 귀환 이동 상황을 단독으로 중계 방송한 것은 특종이었고 큰 성과였음(강대인 위원장)
- 3일 '뉴스현장14'에서 연합뉴스 스포츠부 권훈 대기자가 출연해 박인비 선수가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인비 선수가 LPGA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오픈 우승으로 개인 통산 7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과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소식과 박인비 선수의 다음 목표는 슈퍼 그랜드슬램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슈퍼 그랜드슬램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또한 박인비 선수가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좋았음(성낙용 위원)
-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의 경우 뉴스를 전달하는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 방송사와 비교할 때 연합뉴스TV는 남북 회담에 집중하여 사안의 중요함을 잘 전달했음. 특히 공영방송사와 비교해 볼 때 뉴스 전달력이 매우 좋았음. 23일 종편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관련 편성을 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차별하게 이슈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보였음. 이슈의 맥락을 전달하면서 통일부, 판문점 등을 연결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양승찬 위원)
- 신규 편성된 프로그램인 '트렌드, 지금 여기'는 연합뉴스TV에서 그동안 전달해 오던 프로그램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점과 젊은 감각과 시선으로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전달해주는 문화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신선했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소개하도록 기획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음(이헌규 위원)

- 27일 최근 미국 방송기자 2명 총격 사건보도에서 연합뉴스TV의 절제된 보도가 인상적이었음. 다른 종편의 경우 생방송 중 권총을 발사하고, 총에 맞은 기자가 쓰러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는 선정적 보도를 한 반면, 연합뉴스TV의 경우 총격 이전까지의 상황 중 일부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의 비극적 상황은 사진으로 처리하면서 보도한 것을 칭찬하고 싶음. 방송사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인 자료화면을 통해 시청률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TV가 자제력을 발휘하여 노출 수위를 정리한 것은 분명히 다른 방송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봄(최진녕 위원)
- 화면 좌측 하단의 큐빅 밑에 제시하는 시간고지와 관련하여 아침시간에는 날짜와 요일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지적을 한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강대인 위원장)
-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 운영에 새로운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이 조금 더 정리되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이를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에 반영해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마련하거나 개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를 바람. 타 언론사와 비교할 때 인터넷 뉴스 서비스 부분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양승찬 위원)
- 연합뉴스TV스튜디오에 설치된 데스크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임. 그러다 보니 출연자들이 앉는 의자도 상당히 높음. 게다가 다리가 4개 달린 의자가 아니라 술집용 높은 의자(BAR STOOL)다 보니 출연자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출연자들이 높은 나무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됨. 회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출연자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해보고,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어떤 방식으로건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음(최진녕 위원)
- . (끝)